

2014학년도 송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경상계)

※ 주의사항(인문, 경상, 자연 공통사항)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마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⑤ **검정색 필기구(블랙 또는 사인펜)**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아래의 박스에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나],[다]에 나온 행위자들의 전쟁 참여 결정에 대해 논평하시오. (800 ± 80자, 40점)

*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제문제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이다. 이 행위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효용함수, 즉 단일한 선호집합과 단일한 선택지, 그리고 각 대안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행동은 행위자가 처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택된다. 행위자의 전략적 목표는 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선택지를 구성한다. 선택지에 포함된 행동을 취할 경우 일련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각 결과는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수익과 비용을 동반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가장 큰 효용/가치를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한 나라 혹은 그 대표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그 나라 또는 행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본다.

[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될까요? 우리가 바다에서 이겨 그들의 함대를 유지해주는 재원을 탈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손해만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히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테니 명예롭게 휴전조약을 맺을 수도 없을 것이요. 아무튼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약탈하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에 고주되어서는 안 되요. 오히려 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아테네인들은 자신만만한 만큼 자신들의 나라에 집착하거나, 신병들처럼 전쟁에 겁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요.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이 우리 동맹국에 해를 끼쳐도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음모를 눈감아주자는 뜻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무기를 들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보내 우리의 불만을 전하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뜻을 너무 분명히 밝히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해군력과 재력을 증강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헬라스 인들이나 비헬라스인들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동맹국을 구해야 할 것이요.

[나] 우리는 다른 국가의 침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평화와 전쟁 중 무엇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위해 정확히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중략)

러시아 귀족층의 핏속에서 들끓고 있는 러시아 전제주의가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독립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위험을 막아내고 우리 조국의 문명과 독립을 수호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바, 독일이 위험에 처할 때면 언제든 우리에게서 의지를 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이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노동운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즉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립 및 자국 방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변함없이 지지해온 그 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정복 전쟁을 비난하는 바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사민당> 성명서)

[다] 1940년에 일본은 기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1940년 7월에 나온 육군 참모부의 전략계획은 “영국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게 명확한” 유럽에서의 전쟁종식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본은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우호적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이 시작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금수조치를 취한 후 일본의 강경파들은 일본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는 1941년 11월 12일에 당시 일본 정부 고위층이 공유하고 있던 기본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년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석유가 남아 있지 않아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발이 완전히 묶일 것이다. 또한 서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방위력 증강, 미 해군함대의 확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중국과의 전쟁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2~3년 안에 우리는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조급함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문제 1 해설>

■ 출제 의도

학생들의 연역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본 문제의 기본 목적이다. 먼저 박스에 제시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작동, 응용 방식을 이해, 숙지한 후 이 모델을 실제 사례에 논리적으로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문제의 개요

박스에 제시된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서 국가 혹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즐겨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의 결정이 왜, 어떻게 내려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단일 행위자로서 상황변화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여 국가안보, 국가이익이라는 대목표를 전제로 그 상황에 가장 유용하고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 대안 중에서 이득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이러한 접근방법 때문에 이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불린다. 물론 이 모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혹은 오히려 모순되는 상황들도 허다하지만 그 간결성과 정합성으로 여전히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가장 애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국가 행위자가 전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위협과 기회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통해 효용극대화가 보장되는 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모델의 기본 논리구조와 작동방식을 숙지하여야만 실제 사례에 제대로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는 고대 그리스 시대 가장 대규모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이 라케다이몬에서 회동하여 아테네의 공격성과 거만함을 비난하며 전쟁창가를 결의하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많은 참가자들이 아테네의 행동에 분노하며 아테네와의 결전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케다이몬의 왕 아르키다모스가 강력한 아테네와의 전쟁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왕은 자신의 국가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극대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으며 패배의 가능성이라는 비용(가치의 급격한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전쟁을 피하자 하는 것은 아니며 동맹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여 아테네와의 일전 가능성에 대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사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성명서이다. 사민당은 당시 독일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때로는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전쟁이 임박하자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근거하여 전쟁참여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단체가 독일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기본적으로 민족 방어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민족주의와 조국, 주권수호라는 명분으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이 단체와의 관계, 민족주의가 과연 국가의 효용가치 극대화와 상응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문 [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진주만 기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당시 국제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게 미국이란 대국은 안 그래도 위협적인 존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량은 더욱 강성해져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불리해질 게 뻔하니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지금 당장 기습공격을 감행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에게 자생적 경제력 구축이 가치의 극대화를 가져올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에 이르는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시문 출처(수정, 발췌, 번역, 편집하였음)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ongman, 1999), pp. 24~5.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도서출판 숲, 2011, p. 88.

케네스 월츠, 『인간 국가 전쟁』, 아카넷, 2007, pp. 184~5.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p. 90~1.

문제2 다음을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문제 2-4>에 답하십시오. (1000 ± 100자, 60점)

홍길동 씨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홍길동 씨는 두 가지 프로젝트 중 자신에게 가장 큰 기대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기대이익 = 프로젝트로부터 얻는 기대수입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예를 들어 투자자금)).

프로젝트A를 수행하면 항상 확실하게 127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프로젝트B의 경우 성공과 실패확률이 0.5이며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150원, 실패하는 경우 60원의 수입을 얻는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상의 상황을 요약하여 투자자금과 수입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투자자금	성공 시 수입	실패 시 수입	성공확률
프로젝트A	100	127	-	1
프로젝트B	100	150	60	0.5

<문제 2-1> 홍길동 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홍길동 씨가 선택하는 프로젝트는 어느 것인가? 단, 홍길동 씨가 자신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하에서는 홍길동 씨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입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하자. 투자자금을 차입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먼저 차입금 및 이자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홍길동 씨의 이익이 된다. 만약 프로젝트의 수입이 차입금 및 이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프로젝트 수입금액 전체가 채권자에게 지불된다. 투자자금을 홍길동 씨에게 빌려주는 채권자는 홍길동 씨의 프로젝트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 2-2>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0%인 상황에서 투자자금 100원을 차입하는 경우 홍길동 씨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이때 홍길동 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의 기대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단, 채권자는 홍길동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100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확실하게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2-3>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투자자금 100원을 차입하는 경우 홍길동 씨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채권자는 홍길동 씨에게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단, 채권자는 홍길동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100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확실하게 11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2-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의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진단하고 논평하십시오.

<자료>

지난해 말(2012년 말)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9%, 등록 대부업체는 38.1%로 시중은행 평균(6.9%)에 견주면 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은행의 신용차별을 받는 계층이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려면 대부업체 등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계층이 빌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비중이 최근 1년 사이에 각각 0.8% 포인트, 0.9% 포인트씩 높아졌다. (중략) 저신용자들이 몰리면서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1년 말 12.1%에서 지난해 말 13.1%로, 대부업체는 8.0%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0%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 과장은 “대부업과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 양극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이들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2 해설>

■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차입금 부담(원금+이자)이 경제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 자금의 대여자는 이자율을 인상하기보다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즉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 차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자금의 대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을 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용할당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제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서 차입자와 대여자의 선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고, <자료>에 나타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의 개요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은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기대이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판단하는 내용이다.

<문제 2-1>에서와 같이 자기신의 자금으로 투자계획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A를 선택할 때 기대이익은 $127 - 100 = 27$ 이 된다. 반면 프로젝트B를 선택할 때 기대이익은 $0.5 \times (150 - 100) + 0.5 \times (60 - 100) = 5$ 가 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기대이익이 큰 프로젝트A를 선택한다.

<문제 2-2>의 상황에서 홍길동 씨의 기대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A: $127 - 100 = 27$

프로젝트B: $0.5 \times (150 - 100) + 0.5 \times 0 = 25$

따라서 홍길동씨는 기대이익이 큰 프로젝트A를 선택한다.

홍길동씨가 프로젝트A를 선택할 것을 예상한 채권자는 100원을 대여하여 100원을 돌려받고 기대이익은 0이 된다.

<문제 2-3>의 상황에서 홍길동 씨의 기대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A: $127 - 110 = 17$

프로젝트B: $0.5 \times (150 - 110) + 0.5 \times 0 = 20$

따라서 홍길동 씨는 기대이익이 큰 프로젝트B를 선택한다.

채권자가 홍길동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금액은 $0.5 \times 110 + 0.5 \times 60 = 85$ 가 된다. 이는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100원을 대여할 때 받을 수 있는 110원보다 작으므로 홍길동 씨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않는다.

<자료>는 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로 은행에 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이 높아 고위험의 신용대출이 비은행권에 집중되어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

■ 자료 출처(수정, 발췌, 편집하였음)

박순빈, 「신용 양극화...저소득층 부실위험 커졌다」, 『한겨레신문』, 2013. 4. 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5301.html)